

# 2019 할리우드, ‘아시안 물결’은 더 거세진다

비주류인 亞 콘텐츠·배우 저력 증명  
아시안 배우 1명 기용 공식도 흔들  
마블, 올해 쿵푸히어로 ‘샹치’ 제작  
한국계배우 존조·지혜 등 활약 예고

전 세계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한국어 소감의 여운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직후 객석에 앉은 노부모를 향해 건넨 말이다.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아시안 파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평가 속에 화제가 이어진다.

산드라 오 7일(이하 한국시간) LA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안 배우로는 38년 만에 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이날 ‘킬링 이브’로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도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를 통해 조연상을 받은 그는 이번 수상으로 골든글로브 최초로 두 차례 상을 받은 아시안 배우로도 기록됐다.

‘오미주’라는 한국 이름의 그는 1971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1989년 영화 ‘더 저니 홈’으로 연기를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아시안 배우로 꼽힌다. 30여년 동안 왕성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인 그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주관하는 골든글로브 주연상을 차지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아시안 배우의 활약, 아시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에 힘입은 또 다른 성과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의 북미 흥행을 통해 본격 시작된 할리우드의 아시안 열풍은 아시안 배우들을 주목받게 한 동시에 이들의 연대로도 이어졌다. 그동안 할리우드에서 ‘비주류’로 분류된 아시안 콘텐츠와 배우의 저력을 증명하는 기회도 됐다.

할리우드에서 판타지 시리즈 ‘신비한 동물사전’ 등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수현은 이런 현상이 ‘피부로 와 닿는다’고 했다. “마블의 영화 ‘블랙팬서’가 흑인의 연대를 만든 것처럼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동양인의 연대를 이끌었다”고 짚은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동양인 역할이 백인으로 교체되는(화이트 워싱) 일이나 영화에 한 명의 아시안 배우만 출연하는 관행이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드라 오의 수상을 계기로 올해 할리우드에서 벌어질 아시안 배우들의 활약에도 시선이 향한다. 전 세계 흥행 판도를 좌우하는 마블스튜디오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먼저 나섰다. 최근 마블은 쿵푸에 능숙한 중국계 미국인을 내세운 아시안 슈퍼히어로 시리즈 ‘샹치’ 제작에 돌입했다. 흑인 히어로 시리즈 ‘블랙팬서’의 성공을 경험 삼아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샹치’ 제작에 뛰어 들었다는 해석도 따른다.

한국계 배우들의 활약도 계속된다. 지난해 ‘서치’의 흥행 주역인 존 조는 올해 공포영화 ‘그루지’를 내놓는다.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이름을 쓰는 배우 지혜는 SF블록버스터 ‘모텔엔진’의 주연으로 참여,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할리우드 속 아시아계의 파워가 무섭다. 수현, 산드라 오, 존 조(왼쪽 작은 사진부터) 등 한국계 배우들의 활약도 어느 때보다 눈부시다. 산드라 오 7일(한국시간)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안 배우로는 38년 만에 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LA(미국) | AP·뉴스시 사진제공 | 소니픽처스



## #해시태그 킷



피부미인 강한나

연기자 강한나가 ‘순백의 여신’으로 변신했다. 반짝이는 효과가 돋보이는 메이크업으로 신비로움을 강조했다. 매끄러운 피부결이 특히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민소매 드레스는 강한나의 섹시미를 더욱 강조한다. 팔색조 매력을 자랑하는 강한나의 모습에 팬들도 “예쁘다”, “만화속 공주를 연상하게 한다”며 감탄했다.

#스포츠통아 #강한나 #순백의여신 #도자기피부

## 박신양 vs 고현정 눈돌릴 틈이 없네

‘...조들호2’ 아옹다옹 연기대결

연기자 박신양과 고현정이 번갈아 가며 내뿜는 펀치 한 방에 시청자가 눈 돌릴 틈이 없다.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의 주연을 맡은 이들은 연기 경쟁을 펼치며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박신양은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즌1에 이어 여전한 기세로 캐릭터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변호사가 각종 사건에 휘말렸다 재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시즌1은 2016년 방영 당시 ‘박신양 원맨쇼’로 불리며 17.3%(닐슨코리아)의 높은 시청률을 끌어냈다.

시즌2가 시즌1보다 더욱 강력해진 데는 고현정의 활약이 큰 힘을 발휘했다. 극중 고현정과 박신양은 적대적인 관계로 사사건건 부딪치며 서로를 방해한다. 특히 고현정은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혹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인간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박신양과 더욱 대조되는 모습으로 극적 재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눈썹, 입 꼬리 등 작은 움직임과 표정만으로 음산하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 ‘역시 고현정’이라는 반응을 끌어내기 충분했다.

앞서 고현정은 지난해 초 SBS 드라마 ‘리턴’ 제작진과 겪은 불화로 촬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결국 중도에 하차해 논란과 비난을 모았다. 이에 이번 드라마 출연을 둘러싼 기대와 의심의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드라마 한 관계자는 “박신양과 고현정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며 “시즌1에서는 박신양의 열연이 돋보였다면, 시즌2는 고현정의 가세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다큐 감독’ 문근영·‘강연 MC’ 유아인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들의 사생활〉

〈도올아인 오방간다〉

스타들 교양예능서 색다른 끼 발산  
방송사 교양국 협업 아이템도 붓물



문근영

유아인

톱스타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역사 강연을 이끄는 진행자로 변신한다. 스타들이 교양과 예능의 특성을 버무린 ‘교양 예능’ 프로그램으로 향하고 있다.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연기가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로써 ‘교양 예능’의 효용성에 스타들이 주목하고 있다.

연기자 문근영은 KBS 2TV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들의 사생활’에 출연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그가 평민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을 담는다. 2017년 희소병인 급성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활동을 쉬었던 문근영에게 프로그램은 TV 복귀작이기도 하다.

유아인도 마찬가지다. 그는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데뷔 이후 TV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한 유아인의 도전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8세 차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조합도 볼거리다. 도올과 방정석 및 시청자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유아인의 과감한 변신이 호평을 자아낸다.

스타들은 교양과 예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재능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소신과 프로그램의 취지가 맞닿아 있다는 점도 이들의 선택에 힘이 됐다. 문근영은 ‘동물의 사생활’에 대해 “다큐멘터리

를 만든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동물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유아인도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제목을 직접 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애정을 쏟고 있다.

방송사는 스타들의 이런 도전에 고무된 분위기다. 화제성이 절실했던 교양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스타들의 출연은 단비와도 같다. 실제로 KBS 교양국이 제작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첫 방송에서 3.9%(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연 토크프로그램으로는 선방한 성과다.

이는 앞서 다양한 시도에 나섰던 스타들의 행보를 잇는 것이기도 하다. 연기자 이민호는 2017년 5월 입대 전 다큐멘터리 ‘D MZ, 더 와이드’에 출연했다.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은 최불암의 구수한 매력에 기대고 있다. MBC는 지난해 교양 성격을 띤 예능프로그램인 ‘선을 넘는 녀석들’, ‘토코노마드-아낌없이 주도록’을 선보였다. KBS 역시 1TV ‘김정철의 동네 한 바퀴’와 2TV ‘거리의 만찬’ 등으로 호평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두문불출 이효리, 화제의 인물...왜?

‘효리네 민박’ 6000억원대 경제효과  
민박 직원 아이유 콘서트 깜짝 등장  
사생활 침해로 경기도 이사 휴식중

가수 이효리의 이름값은 여전하다. 지난해 5월 방송한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을 끝으로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이효리가 연초부터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며 독보적인 ‘스타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생활의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파급력은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효리 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한은)는 최근 이효리의 방송 출연 효과로 제주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방송 기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100만7000명 증가했다. 생산유발 효과는 6251억원으로, 제주지역 연간 총 산출액의 2.1% 수준이다.

이효리는 당시 방송에서 거주지인 제주 애월읍과 인근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전혀 없는 장소까지 소개해 관객들이 찾는 명소로 바꾸는 힘을 발휘했다. 한은은 “특히 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던 기간에 방영돼 내국인 관광객 증가를 유도



아이유와 함께 출연한 ‘효리네 민박’.

하는 등 도내 관광산업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이효리는 관광객들이 자택을 수시로 찾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집을 매각하고 현재 경기도 일대로 이사한 상태다. 이후 한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던 이효리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이유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 올라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효리는 지난해 아이유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남편 이상순과 깜짝 게스트로 아이유의 무대에 올랐다. 해당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공개됐고, 2017년 앨범 활동을 끝으로 잠처럼 볼 수 없었던 가수 이효리의 모습에 팬들은 반색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